

1

신라(新羅)에서 건너온 스사노오(須佐之男):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는

야요이 시대의 지배자

본장에서는 야요이(彌生)시대에 일본에서 통치를 했던, 스사노오(須佐之男), 미마키(御間城入彦) 그리고 히미코(卑彌呼) 등, 주술·종교적 주장들의 근원을 검토해 본다. 이들의 소위 통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의 통치인지 분명히 알수는 없지만, 최소한 스사노오가 이즈모(出雲)에서, 또 히미코가 큐우슈우에서 통치를 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다. 에가미는 미마키가 한국으로 부터 큐우슈우에 이주해서, 그 곳을 한동안 통치 하다가 야마토 지역을 정복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스사노오의 근원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샌섬(1931: 26)에 의하면, “기원전 몇세기 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남동부 지역[신라지역]과 이즈모를 포함하는 일본의 일부 지역에는 같은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게 거의 틀림 없는것 같다”

는 것이다. 일본서기(NI: 57)의 기록에 의하면: “스사노오는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 그 때문에 모든 신들에 의해 그에게 벌이 내려졌고 . . . 결국 추방 되었다. 스사노오는 그의 아들 이소타케루를 데리고 신라(新羅國)로 내려 와서, 소시머리(曾尸茂梨)에 살았다. 그러다가 소리를 가다듬어, ‘나는 이 땅에 안 살겠다’라고 말했다. 얼마후 그는 진흙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동쪽 바다를 건너서 이즈모(出雲國)의 히강 상류에 있는 토리가마 산 꼭대기(鳥山之峯)에 당도했다.”^{<1>}

일본서기(NI: 58)는 계속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소타케루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올때, 그는 나무의 종자들을 잔뜩 가지고 왔다. 하지만 그는 그 씨앗들을 한국땅(韓地)에 심지 않고 . . . 큐우슈우로 부터 시작해서 일본열도(大八洲國) 방방곡곡에 남김없이 뿌렸다.”

일본서기(NI: 58-59)는 또 이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얘기도 기록하고 있다. 즉 스사노오는 처음에 신라땅에 나무들을 심었고, 그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일본땅 이즈모로 건너 왔다는 것이다: “스사노오는 말하기를, ‘한국땅(韓鄉)에는 금과 은이 있다. 현대 내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배(浮賣者)가 없으면 안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나서 스사노오가 그의 수염을 뜯어내서 뿌렸더니 삼나무들이 자라났다. . . . 그의 눈썹을 뽑아 뿌렸더니 장뇌 나무들이 자라났다. . . 이 두 종류의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 . . 이제 스사노오의 아들들이 나무 씨앗들을 방방곡곡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이땅(紀伊國)으로 건너갔다. 그로 부터 얼마동안 스사노오는 [가야 의] 구마나리 산꼭대기(熊成峯)에 살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역시 아래쪽 나라(根國者)로 들어갔다.”^{<2>}

샌섬(1963: 33-34)은 “서기 733년에 편찬된 이즈모 풍토기(出雲風土記)라는 책에는 이즈모 사람들의 근원에 대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즉, 신이 남한에 땅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신라의 한쪽 구렁이를 떼어내어 바다 건너로 끌고가 이즈모 땅에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민이란

것을 설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일본서기 첫째권(NI: 59)에 의하면, 신라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은 이즈모에 정착해서 “단결된 힘과 마음으로 천하를 경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서기의 둘째권은 이 신라 이주민들이 결국은 쿠우슈우를 거쳐 야마토 지역으로 온 사람들(백제 출신 황족)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샌섬(1931: 26)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즈모 사람들은 남한에 살고 있는 동족으로 부터 전수 받거나, 그들과 공유하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혀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모두다 세 가지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것은 이즈모 씨족 조상의 역사를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번 것은 야마토에 정착해서 통치를 한 큐우슈우로 부터 온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고, 세번째는 야마토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다.”

일본서기(NI: 80-81)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 천신 다카미무스비(高皇產靈尊, 아마테라스 며느리의 부친)가 자기의 외손자를 위해 일본땅을 평정하려고 두명의 신을 먼저 내려 보냈는데, 이 두명의 신은: “이즈모의 이타사 해변에 내려와서 [스사노오의 아들] 오호나모찌(大己貴神)에게 ‘당신은 이 나라를 천신에게 바칠것ियो, 안바칠 것ियो?’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사노오의 아들은 ‘나는 그러지 않아도 당신들이 내땅을 차지하려고 온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것을 허락할수 없다 . . . ’ 오호나모찌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다카미무스비는, 그 두명의 신을 다시 돌려보내서 오호나모찌에게 다음과 같이 전갈하게 했다. ‘당신이 한말을 듣고 보니, 당신 말에도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좀더 완곡하게 표현을 해 보겠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당신이 수행해 왔던 통치 행위는 내 외손자가 말아서 하도록 하고, 당신은 제사에 관련된 일(神事)들을 관장토록 해라 . . . 나는 당신을 위해 쌀농사를 해주도록 시키겠다. . . 그리고 아메노호히로

하여금 당신을 위한 제사를 주관토록 하겠다.’ 이 전갈을 듣고나자 오호나모찌는 ‘천신의 칙교(勅敎)가 이토록 공손하니 내 감히 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통치 행위를 황손(皇孫)이 맡아서 하도록 하고, 나는 은퇴를 해서 제사일(神事)들이나 관장을 하겠다.’¹⁾ 이런 경위를 거쳐서 아마테라스의 손자(즉 다카미무스비의 외손자)가 일본에 내려와 야마토 땅을 접수하는 얘기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¹⁾

샌섬(1931: 26-27)은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서로 상충되는 큐우슈우 신화와 이즈모 신화를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즉 “이즈모의 오호나모찌가 큐우슈우에 내려온 아마테라스의 손자에게 숙세의 일을 위임하고, 자기는 이후부터 제사에 관한 일이나 관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검토해 보면, 큐우슈우 황족이 통치권은 장악할수 있었지만, 이즈모 씨족에게 제사일을 관장토록 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회유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즈모의 신사(神社)는 이세(伊勢)신사 바로 다음으로 중요하게 된 것이다.

스사노오는 맨날 몰부짚는 사악하고, 잔인한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불시에 죽게 만들었고, 논(畝)들을 망쳐 놓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부모가 암흑의 하계(下界)나 다스려 보도록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스사노오를 이런식으로 묘사 하는 것은, 일본사서(史書)들이 백제 사람들은 유별나게 따뜻하게 묘사하는데 반해서, 신라 사람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묘사 하는 전통에 부합하는 것이다. 신라에 관한 한국측 역사 기록은, 큐우슈우 왜인들이 해적모양 신라 연안을 침범하는 것을 무수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본서기는 일본 사람들이 신라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¹⁾일본서기 신대기(神代記)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 한다는 것은, 그저 짐작으로 말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스턴(NI: 11n)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그 애매한 이름들의 일부는 한국 이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이시록은 한국의 사기리를 언급하고 있고, 또 잘 알려진 한국의 다른 신들이 일본에서 섬겨지고 있는 것이다.”

원한을 기록하고 있다.² 따라서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스사노오에게 전가시켜 버렸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수 있다.

샌섬(1963: 33)이 말하는 바와 같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은,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드높은 분부를 내세우면서 야마토 지배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스사노오는 국가의 통치권을 물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 했었던것 같다.

신라 왕족의 후손으로 부터 백제왕족의 후손 한테로 통치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일본서기는 (NI: 185-186) 다음과 같이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 신라의 천일창(天日槍)왕자는 처음 일본땅에 건너 올 때 (옥, 거울, 칼 등)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는 배를 타고 와서 타지마 땅에 닿을 내리고 그 곳에서 살았다; 스이닌(垂仁)은 사자를 천일창의 증손자 기요히코에게 보내서, 그 보물들을 천황에게 바치라는 명을 내렸다; 기요히코는 그 신성한 보물들(神寶)을 직접 들고와서 스이닌 앞에 바쳤다; 그 보물들은 모두 신부(神府)에 보관되었다.^{3 (5)}

²일본서기 (NII: 81)는 킨메이(欽明)가 내린 조서(詔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쪽에 살고 있는 비열하고 천박한 신라 인간들, 하늘을 거역하고, 우리가 베푼 은의(恩義)를 저버리고, 우리 관가(官家)를 부수고, 우리 백성들을 독살하고, 우리 군현(郡縣)의 사람들을 멸살하고 . . . 살아 있는 사람들을 잔악하게도 간을 꺼내고, 다리를 잘라 내면서, 희희낙락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우고, 뼈를 햇볕에 구어 대면서, 이런것이 잔혹한 짓이라는 말도 안한다.”⁽⁴⁾

³제2장 제6절 (105페이지)에서 아마테라스가 니니기에게 준것이라고 소개된 삼보(三種寶物: 玉, 鏡, 劍)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신기(神器)로 취급돼 왔는데, 그중에 칼(大刀: 草薙劍)이 백제로부터 건너온 것이라는 헤이안(平安)시대 기록들을 교토(京都) 대학의 우에다(上田正晴) 교수가 1986년에 공개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신라로부터 건너온 것이라는 신보 가운데 들어있는 칼은 작은칼(小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